

이달의 초점

2023년 노인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

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일과 소득

|황남희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김세진

노인의 건강과 돌봄

|강은내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선희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¹⁾

Leisure Activities and Digital Technology Use Among Older Koreans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노인의 81.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며 평균 1.1개의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였다. 여가문화활동의 대부분은 휴식활동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었으며 사회참여활동 역시 친목단체와 종교 활동의 비율이 높았다. 두 가지 활동 모두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참여율이 낮았다. 현재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각 시설 유형별 이용 연령군이 상이하였으며, 노인 집단 내 여가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연령별 분절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화 역량에서도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기본적인 역량(메시지 보내고 받기 등) 외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금융 및 전자상거래 등)은 대부분 노인들이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정보화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여가와 정보화 수준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큰 영역이지만, 노인이기에 갖는 보편적 어려움도 공존한다. 따라서 노인 집단의 이질성과 보편적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 노인은 여가(餘暇) 시간이 증가한다. 통상 여가시간이란 1일 평균 일

을 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문화체육관광부, 2022)으로 정의하는데, 노년기 1일 평균 여가시간²⁾은 6시간 51분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여가시간(4시간 47분)보다 많다

1) 이 글은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혜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9장 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한 것이다.

(통계청, 2020). 이에 노년기의 여가시간은 삶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노년기 여가시간의 적절한 활용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진원, 임구원, 2020).

개인의 여가시간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휴식을 취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활동을 이어 가거나, 자원봉사 등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여가활동은 본인이 자유로운 시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윤혜진, 2015). 이러한 여가시간 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경향 파악은 향후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다는 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 여가정책의 기반 마련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노인이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하는 여가문화활동³⁾과 사회참여활동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인 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도 함께 검토하였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60대 노인의 93.3%, 70대 이상 노인의 62.6%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노인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주 평균 60대 13.1시간, 70대 이상 7.6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노인들은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은 여가시간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투여하고 있다. 많은 노인이 하루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하는 등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 활동은 노인에게도 일상화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는 노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미 많은 연구(황남희 외, 2020; 남현주, 이현지, 2024; 이호철, 원영주, 2024)에서 증명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기 활용뿐만 아니라 은행 점포의 감소, 키오스크 활용의 일상화, 대화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정보화는 우리 삶의 일상에 더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의 가속화는 향후 노인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SNS 활동, 음악감상, TV 및 유튜브 시청)는 노인의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보화 기기 활용 역량을 파악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위한 어려움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붐 첫 세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신규 노인이 기존 노인층과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였는데, 여가활동 및 정보

2) 여가시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통계청, 2020).
 3) 여가문화활동: 노인 개인의 여가문화활동으로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등으로 정의(김세진, 2021)한다.
 4) 사회참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외하고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연계를 통해 일정한 규칙에 따른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동호회활동, 친목단체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으로 정의(김세진, 2021)한다.

화 수준에서 차이가 매우 두드러졌다(이윤경 외, 2020). 이에 이 글에서는 노인의 여가와 정보화 현황에 대해 ‘연령’을 중심으로 노인 집단 내에서의 이질적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향후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현황

가.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종류

우리나라 노인의 95.3%는 전통적인 TV와 라디오를 활용하여 1일 평균 3.9시간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하고 있었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노년층에서도 스마트 기기 보유율이 증가(스마트폰 보유율 2020년 56.4%, 2023년 76.6%)(이윤경 외, 2020; 강은나 외, 2023)하면서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 및 유튜브 시청과 라디오 청취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43.7%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하였다. 전통적인 TV와 라디오의 시청(청취)률은 연령군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스마트 기기 활용을 통한 시청(청취)률은 65~69세는 65.5%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인 반면 85세 이상은 8.6%로 연령군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청(청취) 시간에서는 전통적인 TV와 라디오 시청(청취) 시간은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더 오래 시청(청취)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시청(청취) 시간은 모든 연령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여 접근 가능한 도구에 따라 연령군별 상이한 특성을 보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81.3%는 TV 시청 및 라디오

[표 1] 노인의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현황

(단위: %, 시간)

	TV와 라디오 활용		스마트 기기 활용		
	시청 및 청취율 ¹⁾	시간 ²⁾	시청 및 청취율 ¹⁾	시간 ³⁾	
전체	95.3	3.9	43.7	1.3	
연령	65~69세	96.0	3.4	65.5	1.3
	70~74세	95.4	3.8	48.8	1.3
	75~79세	93.7	4.2	33.7	1.4
	80~84세	95.4	4.3	20.2	1.4
	85세 이상	95.0	4.5	8.6	1.4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기존의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600명을 대상으로 함.

3)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47명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표 2] 노인의 주된 여가활동 종류

(단위: %)

	참여율 ¹⁾	주된 여가활동 ²⁾³⁾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전체	81.3	1.9	3.1	2.7	9.1	4.3	39.1	96.5	43.2	
연령	65~69세	86.3	3.1	2.9	3.9	12.6	6.3	44.3	87.6	39.2
	70~74세	82.6	1.9	2.5	2.5	8.7	4.1	38.7	97.2	44.4
	75~79세	81.1	1.3	3.6	2.0	8.8	3.7	35.6	101.5	43.5
	80~84세	75.5	0.6	4.3	1.4	5.9	2.1	38.0	103.5	44.1
	85세 이상	69.9	0.4	2.3	1.6	1.5	1.7	28.0	110.9	53.6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전체 응답자 1만 78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90명을 대상으로 함.

3) 1순위, 2순위 중복응답에 대한 분석으로 각각의 합이 100.0%를 넘을 수 있음.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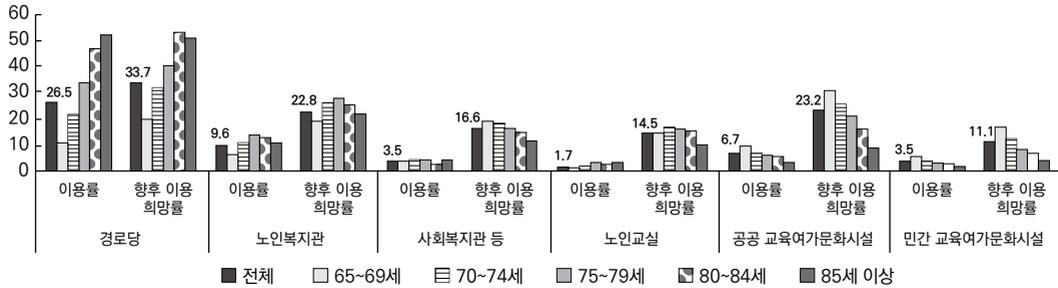
청취를 제외한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연령이 적은 집단의 참여율이 높았다. 여가문화활동 참여자들이 주로 하는 여가문화활동은 휴식활동이 9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회 및 기타 활동 43.2%, 취미오락활동 39.1%로 여가문화활동의 대부분은 위의 세 가지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 활동들은 10% 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연령이 많은 집단의 경우 가장 소극적 여가문화활동으로 볼 수 있는 휴식활동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동 능력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등은 연령이 많은 집단의 참여율이 낮았다. 이러한 연령군에 따른 여가문화활동 종류의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화 과정에서 기능 상태의 악화로 이동성이 약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노인의 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 및 향후 이용 의향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으로 전체 노인의 26.5%가 이용하였다. 노인복지관은 9.6%,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은 6.7%, 사회복지관과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은 각각 3.5%, 노인교실은 1.7%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은 연령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경로당의 경우 60~69세는 10.1%만이 이용하였으나 85세 이상은 51.8%로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등 연령이 많은 집단의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 공공·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과 반대로 연령이 적은 집단의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연령군별 현재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이 상이함을

[그림 1] 노인의 여가문화시설 이용 경험 및 향후 (계속) 이용 의향

(단위: %)



주: 1) 현재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향후 (계속) 이용 의향은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교실과 같이 공공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75~79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70세 미만의 이용률은 매우 낮아 신규 노인 집단의 여가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공공복지기관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계속) 이용 의향은 경로당이 33.7%로 가장 높았다.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 23.2%, 노인복지관 22.8%, 사회복지관 등 16.6%, 노인교실 14.5%, 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 11.1%로 경로당 외에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계속) 이용 의향 역시 연령군별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경로당은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향후 (계속) 이용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공공·민간 교육여가문화시설과 사회복지관 등은 연령이 적은 집단에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60~69세는 모든 시설 유형 중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의 향후 (계속) 이용 의향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75~84세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노인 집단 내에서도 연령군별 선호하는 노인 여가문화시설이 상이하며, 연령 분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베이비 붐세대가 포함된 신규 노인층인 65~69세의 경우 기존의 복지기관(복지관 등)보다는 여가문화활동을 집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육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고려할 때,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기존 복지기관들의 여가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

3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현황

2023년 기준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참여율

을 살펴보면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활동 33.3%, 학습활동 13.3%, 동호회활동 6.6%, 자원봉사활동 2.5%, 정치사회단체활동 1.3% 등의 순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별 참여율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학습활동은 2011년 6.7%에서 2014년 13.7%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2011년 3.9%에서 2014년 4.5%로 증가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동호회 활동은 약간의 등락이 있는데, 2020년 대비 2023년 1.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타 연도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친목단체활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치사회단체활동은 계속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1.2%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마지막으로 종교활동은 2017년부터 조사에 포함되어 비교 기간이 짧지만, 2017년과 2020년 대비 2023년 급감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참여율은 각 활동의 특성별 상이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각 활동의 참여율 등락 경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한국 노인은 평균 1.1개의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중 30.2%는 지난 1년간 사회참여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38.9%는 1개, 22.8%는 2개, 8.2%는 3개 이상에 참여하였다. 지난 1년간 참여한 사회참여활동의 개수는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는데, 65~69세는 1.4개, 70~74세는 1.2개, 75~79세는 1.0개, 80~84세는 0.8개, 85세 이상은 0.6개로 연령이

[표 3]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현황

(단위: %)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학습활동	6.7	13.7	12.9	11.9	13.3
자원봉사활동	3.9	4.5	3.9	2.9	2.5
동호회활동	3.8	4.9	4.4	4.7	6.6
친목단체활동	37.4	43.3	45.6	44.1	54.2
정치사회단체활동	0.7	0.5	0.4	1.2	1.3
종교활동	-	-	52.9	53.3	33.3

주: 1) 종교활동은 2017년 조사부터 포함되어 2011년과 2014년 결과 비교 불가.

2)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2)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3)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 20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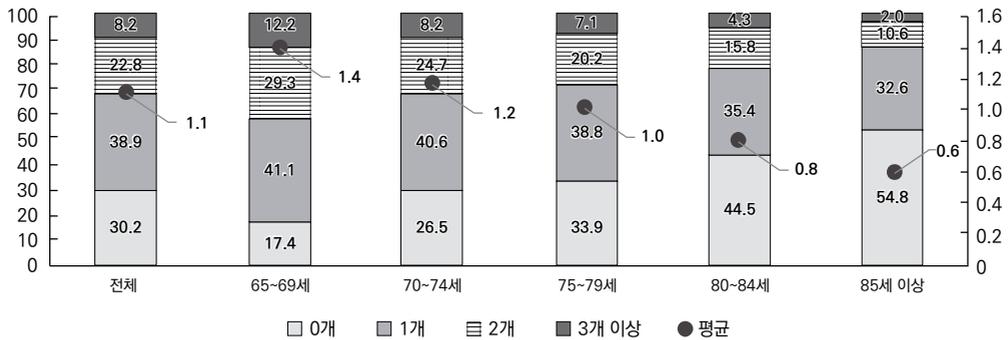
4)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외,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5)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적은 집단에서 사회참여활동 참여 개수가 많았다. 또한 65~69세는 82.6%가 1개 이상의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85세 이상은 54.8%가 사회참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군별

[그림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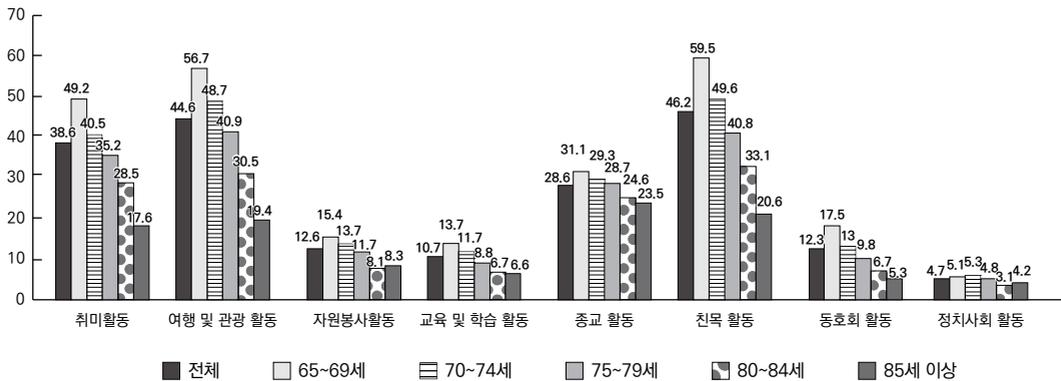
(단위: %, 개)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사회참여: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동호회활동, 친목단체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종교활동을 의미함.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그림 3] 노인이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 현황

(단위: %)



주: 1)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향후 희망활동 참여 의사에 대해 1 매우 그렇다~5 전혀 그렇지 않다 중 1 매우 그렇다와 2 그렇다의 합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은 친목활동이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행 및 관광활동 44.6%, 취미활동 38.6%, 종교활동 28.6%, 자원봉사활동 12.6%, 동호회활동 12.3%, 교육 및 학습활동 10.7%, 정치사회활동 4.7% 등의 순이었다. 모든 사회참여활동 유형에서 연령이 적은 집단의 사회참여활동 참여 희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교육 및 학습활동, 종교활동의 경우 80~84세와 85세 이상 연령군의 참여 희망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타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4 노인의 정보화 현황

최근 노인 건강관리·돌봄 및 독거노인 지원을 위

한 다양한 정책(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AI 콜 플랫폼 등)의 확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물형 인터넷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구 내 유·무선 인터넷 설치는 필수사항이 되었으나, 노인의 46.5%만이 가정 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였다. 65~69세의 경우 64.4%로 절반 이상이 가정 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지만, 70세 이후는 절반 미만이며, 85세 이상은 21.6%만이 가정 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여 고연령 노인 집단에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유율과 보유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률을 살펴보면 노인의 76.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68.8%가 사용하였다. 컴퓨터는 20.6%가 보유하고 13.2%가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는 2.1%가 보유하고 1.9%가 사용하는 등 스마트폰의 보유율과 사용

[표 4] 노인의 스마트 기기 사용 환경 및 사용률

(단위: %)

	인터넷 이용 가능률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워치	
		보유율	사용률	보유율	사용률	보유율	사용률
전체	46.5	76.6	68.8	20.6	13.2	2.1	1.9
65~69세	64.4	94.9	90.7	32.5	23.4	4.0	3.7
70~74세	48.3	84.2	75.6	19.9	12.9	1.8	1.6
75~79세	38.6	72.3	60.6	13.9	7.8	0.9	0.8
80~84세	26.9	55.0	43.4	10.3	3.2	0.8	0.6
85세 이상	21.6	35.7	26.7	8.5	2.3	0.0	0.0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률이 가장 높았다. 스마트 기기 보유율과 사용률은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는데 모든 기기에서 낮은 연령군의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65~69세는 90.7%가 보유 및 사용하는 반면 85세 이상은 35.7%가 보유하고, 26.7%만이 사용하는 등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군별 정보화 관련 다양한 차이는 정보화 기기 활용 역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보화 기기 사용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메시지 받기와 보내기는 노인의 83.6%와 74.7%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5~69세는 95%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반면 85세 이상은 30% 이하만이 메시지 받기와 보내기를 할 수 있는 등 기본적 기능 활용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65~69세는 정보 검색 및 조회(78.3%), 사진동영상 촬영

(79.0%), 동영상 보기(65.7%), 영상 통화(64.8%) 등의 기능을 약 60%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반면 70~74세는 약 40% 이상, 75~79세는 약 30% 이상, 80~84세는 약 20% 이상, 85세 이상은 약 10% 내외로 활용 가능하여 연령군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12.0%), 금융거래(20.2%),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17.9%)의 경우 전체 노인의 20% 이하만이 가능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약 10% 미만(85세 이상 약 3% 미만)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연령 집단은 취약성이 더욱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노인의 67.2%는 빠르게 발전하는

[표 5]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활용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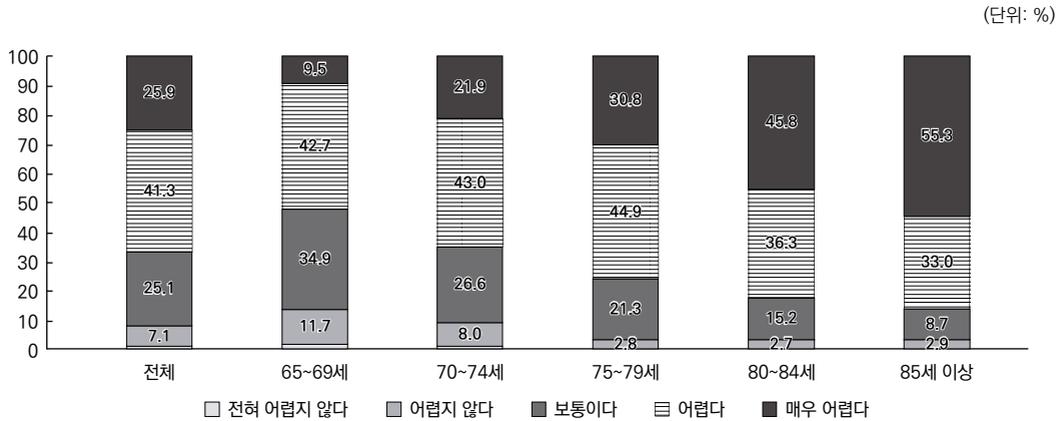
(단위: %)

	메시지 받기	메시지 보내기	영상 통화	정보 검색 및 조회	사진 동영상 촬영	음악 듣기	게임	동영상 보기	SNS 이용	전자 상거래	금융 거래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키오스크 활용 주문 및 접수
전체	83.6	74.7	44.2	51.1	52.7	26.7	15.0	44.2	8.6	12.0	20.2	13.4	17.9
65~69세	97.3	95.2	64.8	78.3	79.0	42.6	27.0	65.7	17.5	25.3	39.8	27.8	35.0
70~74세	90.9	82.1	48.1	54.7	57.4	28.1	14.8	49.1	7.8	9.9	18.4	10.5	15.2
75~79세	83.3	70.3	33.7	36.6	40.7	17.5	8.0	34.0	3.0	3.4	7.5	5.3	8.3
80~84세	66.1	49.3	22.0	23.0	23.1	11.2	3.8	20.5	0.7	1.4	3.3	1.7	2.3
85세 이상	44.8	30.2	13.0	12.9	12.5	6.4	1.9	9.1	0.7	0.6	2.4	0.4	3.0

주: 1)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그림 4]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 어려움



주: 1)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어렵다+매우 어렵다)을 느끼고 있었다. 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어렵지 않다)는 비율은 7.7%로 매우 낮았다. 어려움 비율은 연령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85세 이상은 88.3%가 적응이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65~69세는 52.2%가 적응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어렵다도 85세 이상은 55.3%, 65~69세는 9.5%로 큰 차이를 보였다.

5 나가며

우리나라 노인의 81.3%는 여가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96.5%는 휴식활동에 참여 중이다. 적극적 여가활동의 참여 비율은 10% 미만으로 여가문화활동 참여자의 대부분은 소극적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사회참여활동 참여율에서도 노인의 69.8%가 1개 이상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중 친목단체와 종교활동 같은 사회적 관계 중심의 활동 참여자가 약 50% 이상으로 관계 중심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았다. 반면 학습·자원봉사·동호회·정치사회단체활동과 같은 특수 목적성 사회참여활동의 비율은 10% 내외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활동의 참여율과 참여 유형은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두 가지 활동 모두 참여율이 낮고, 소극적 활동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여가 및 사회활동은 양호한 신체적 기능 상태 및 건강 상태가 우선되어야 적극적 활동(신체 및 시간적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85세 전후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 및 기능 상태

가 나빠지며(김세진 외, 2021), 이에 연령이 높은 집단은 활동력이 낮은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연령군별 여가문화·사회참여 활동의 차이는 여가문화시설 이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시설유형별 주된 이용자의 연령군이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경로당은 85세 이상, 노인복지관은 75~80세, 사회복지관과 노인교실은 75~79세, 공공 및 민간 여가문화시설은 65~69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경로당과 공공 및 민간 여가문화시설은 연령군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경로당은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이용률이 높고, 공공 및 민간 여가문화시설은 그 반대 경향을 보였다. 향후 이용 의향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령군별 여가문화시설 이용 경향은 기존 여가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 기인한 결과이다. 첫째, 접근성 측면이다. 경로당은 노인이 이용 가능한 여가복지시설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시설로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이동이 쉽지 않은 고연령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설이다. 그 외 여가문화시설의 경우 시·군·구별 1~2곳으로 고령의 노인에게는 접근성이 매우 낮다. 둘째, 신규 노년층의 전문적 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 측면이다. 베이비붐세대가 속한 65~69세는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보다는 교육여가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이용률이 높다. 특히 공공 교육여가문화시설의 경우 향후 이용 희망률은 65~69세 연령군에서 노인복지관보다 약 11.6%

포인트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 세대 내에서의 연령간 단절 발생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김세진, 2021). 노인 집단 내 이질성의 강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들이 보다 통합적으로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법에서 정의된 세 가지의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외에 다양한 형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신규 노년층의 진입으로 노인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세분화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들이 사회참여활동은 평균 1.1개로 대부분 친목활동과 종교활동 중심이다. 80세 이상부터는 1개 미만으로 사회활동참여율이 매우 낮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낮은 수준의 사회참여활동 측면이다. 친목활동과 종교활동을 포함하더라도 1.1개 수준의 사회참여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회참여활동에 소극적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둘째, 친목활동과 종교활동 등 소극적 내용 중심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신규 노년층의 진입과 노년층의 특성 변화(활동적 노인 증가, 긍정적 노인상의 확대, 노인정책 확대에 따른 노인의 삶 안정화 등)(이윤경 외, 2021)로 앞으로의 노인은 우

리 사회에서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이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 역시 친목, 여행 및 관광, 취미 활동 등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취미여가 중심으로 선배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기여와 개인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역할과 관련된 활동의 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향후 노인인구 절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인력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기여적 사회참여활동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고령 노인의 낮은 사회참여에 따른 사회적 고립 위험의 문제 측면이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으로 진입하게 되면 친목활동 및 종교 활동 중심의 소극적인 사회참여활동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결국 이들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경로당과 같은 근거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소규모 동호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식사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경로당 이용을 독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화형 시의 발달,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은행 점포 수 감소, 온라인 중심의 각종 예매서비스 등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정보화되고 있으며, 노인의 67.2%는 이러한 변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

끼고 있었다.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65~69세 연령군에서도 52.2%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적응은 노인에게 또 다른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기기의 단순한 활용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다. 실제 노인들 중 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은 65~69세도 95% 이상이 메시지 보내고 받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위한 전자상거래(25.3%), 금융거래(39.8%), 키오스크 활용(35.0%)은 40% 미만만이 가능하며, 85세 이상은 3% 이하로 대부분 불가능하다. 단순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적응 기제 마련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전 연습을 통해 적응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화 기기 활용을 위한 환경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 정책 내 정보화 기기(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등)를 활용한 노인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한 기기 미보유 및 가정 내 인터넷 미설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황남희 외, 2020).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노인 가구의 46.5%만이 가정 내 인터넷이 이용 가능했으며, 85세 이상은 21.6%만이 가능하였다. 스마트폰 보유율도 85세 이상은 35.7%로 매우 낮았고, 컴퓨터 보유율은 전체 노인 중 20.6%에 불과했다.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빠른 정보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보화 기기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버스, 지하철 등 공공와이파이 등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나,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노인들에게는 도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조성과 함께 와이파이 활용, 블루투스 연계 등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야 한다. ㉞

참고문헌

-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해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통계표**.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lIdx=99870&bcldIdx=26741&parentSeq=26741
- 김세진. (2021).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보건복지포럼**, 300. pp. 22-34.
-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원, 임구원. (2020).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4(4), pp. 11-24. <https://doi.org/10.26446/kjlrp.2020.12.44.4.11>
- 남현주, 이현지. (2024).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 19(2), pp. 183-189.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규,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지현, 권중돈, 김수봉, 이소정, 이용식, 이윤환, 최성재, 김소영.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혜진. (2015). 노인여가 연구의 학문적 동향 및 연구제언. **관광레저연구**, 27(7), pp. 169-186.
- 이윤경, 김세진, 남궁은하, 임정미, 김혜수, 이선희. (2021). **미래 노인 정책 혁신을 위한 종합적 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호철, 원영주. (2024). 한국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보건연구**, 50(2), pp. 23-31.
- 통계청. (2020. 7. 3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400&bid=220>
- 황남희, 김혜수, 김경래, 주보혜, 홍석호, 김주현. (2020). **노년기 정보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isure Activities and Digital Technology Use Among Older Koreans

Kim, Se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explores leisure activities and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among older adults, drawing on data from the 2023 Survey of Older Koreans. On average, older Koreans participated in 1.1 social activities. About 81.3% of older adults engaged i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most of which were passive activities like resting. Gatherings and religious events were the most common social activities, but participation rates declined with age. Older adults utilized various public facilities for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with distinct preferences evident among different age groups. Older adults' ability to use digital technologies varied significantly across age groups. However, while many could send and receive messages, most found themselves unable to perform everyday tasks involving e-financial transactions or e-commerce. This may explain why most older adults reported challenges in adapting to our society's increasing digitization. Older adults significantly vary in their leisure activities and digital competence, yet they face common challenges related to aging. Policymaking must address both disparities among older adults and their commonly shared vulnerabilities.